

지혜의 말씀

불기 2564년 5월 / 통권 471호



대한불교조계종 **진행대광사**



證道歌 (증도가)

묵 시 설 설 시 묵
默時說說時默 이요
대 시 문 개 무 응 색
大施門開無壅塞 이라

침묵하는 때가 말하는 때고 말하는 때가 침묵하는 때이니
크게 베푸는 문이 열리니 응색함이 없다.

유 인 문 아 해 하 종
有人問我解何宗 하면
보 도 마 하 반 야 력
報道摩訶般若力 이라고 하리라

누가 나에게 어떤 근본을 아는가? 묻는다면
마하반야의 힘이라 말하리라.

목 차

시와 불교의 만남 · 2

생각의 터 · 4

더불어 사는 삶 / 서경스님

불교상식 · 7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의 말씀 · 11

알림마당 · 14

대광사 5월의 행사

고맙습니다

제22회 산사음악회 연기 안내

부처님 오신날 연등 접수



표지그림/원성스님

● 발행처 / 대광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03(태백동)

Tel. 055) 545-9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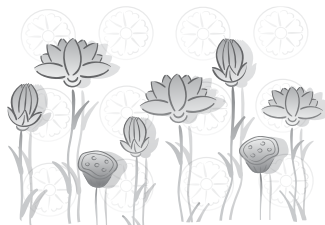
홈페이지 / ① 대광사

② www.daegwangsa.or.kr

● 발행인 · 편집장 / 서경스님

● 주 간 / 이숙경

● 편집 · 인쇄 / 디자인스프링





절망에서 희망을

운성스님 / 대광사 회주

세상이 불안하고 어지러울수록 새 세상을 향한 염원은 커지고 현실이 고통스럽고 두려울수록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기대가 커지기 마련이다.

인도인들에게는 전문왕이라는 비현실적 꿈의 존재가 어지러운 시기마다 인도인들을 희망의 나라로 이끌며 용기를 잃지 않게 했다. 언젠가 전문성왕이 출현하여 뛰어난 통솔력과 지혜로 나라를 통일하고 백성을 평화롭게 다스려 백성을 질곡에서 구할 것이라는 ‘구세 사상’이다.

불가에서는 미륵이라는 부처님이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오셔서 석가를 이어 사바세계를 다스려서 중생들을 구제하고 나라를 평화롭게 하실 거라는 희망의 대상이다. 어떤 어려움도 버티고 견디며 이겨내게 하는 구세 사상이다.

불교의 영향이 컸던 신라말 고려 초에도 어김없이 미륵이 등장해

서 불안한 시국을 희망으로 견디게 했으며, 조선이 망해갈 무렵 일본 청나라 소련 등이 서로 한반도를 두고 으르렁거리던 암울한 시기에 어김없이 희망의 미륵은 등장했다.

유태인들이 시리아와 로마의 침탈을 연달아 받으며 내일을 예측 못 할 하루하루 불안으로 살고 있을 무렵 구세주에 대한 신앙이 강하게 일어났다.

종말론이 드세계 일어나는 시기는 언제나 현재가 불안하고 두려운 시기다. 사회가 불안하고 힘들수록 구세주를 기다리는 희망도 함께 일어나기 마련이다.

며칠 뒤면 기독교인들의 크리스마스 다음으로 큰 명절인 부활절이다. 질병 본부에서는 부활절을 간소하게 치러줄 것을 교계에 주문하고 있지만 대부분 교회는 따를 자세지만 더러는 코웃음 치고 있기도 하다.

부활에 대한 믿음 역시 미래를 향한 기대와 희망이 만들어낸 현실 불안의 위로 방법이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데 이를 이용해 흑세무민하는 일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부활의 궁극 목적은 무덤에서 송장이 되살아나는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송장처럼 죽어 썩어지는 하잘것없는 삶을 살다 가지 말고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영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영원하고 영롱한 빛의 소리가 아닐까?

그렇다. 인간은 위기가 닥치면 앉아서 무기력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기대를 놓지 않고 어떻게든 난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지혜를 발휘한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고로나를 이겨내려는 연구와 노력이 줄기 차게 이어지고 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가 문제지 인간은 반

드시 코로나를 이겨내고 말 것이다. 인류가 질병의 침략을 이겨낸 경우는 여러 번 있었다.

그 슬한 역사 속 기록을 다 살필 수는 없고 가까운 예를 보자면 1918년 세계를 죽음의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스페인 독감은 무려 세계의 인구 5천만 명을 죽음의 구렁으로 몰아넣었다. 당시의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죽은 사람 숫자가 9백만 명인 것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알 수 있다.

당시의 우리나라는 조선 시대였는데 의료시설이 매우 열악했던 가난한 나라였다. 속수무책으로 당했는데 인구 1,700만 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740만 명이 감염되고 14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821년 조선 순조 때 코레라가 상륙하여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기록되고 있으며 이름을 우리 말로 호열자()라고 했다. 호랑이가 육체를 찢는 듯한 고통을 준다는 뜻이다.

1919년에 다시 코레라 습격이 있었는데 이때 2년간 소멸하지 않고 4만여 명의 환자를 만들고, 25000명의 사망자를 냈다고 한다.

인류의 역사를 유심히 살펴보면 참 묘한 함수관계가 보인다. 즉 역경에서 새 희망을 찾고 고난에서 새 진로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전쟁이 치열했던 시대에 새로운 문명이 만들어지고 천재지변이 잦은 곳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낸다.

나라를 알뜰하게 걱정하며 나라와 백성과 불교가 혼연일치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하기에 부처님 오신날을 한 달 뒤로 미루었다. '부처님 구세'로 어서 이 질병에서 벗어나 오히려 이 질곡이 우리를 도약하게 하는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 한다.



4. 수행과 열반

1) 사성제와 팔정도

연기법과 사법인의 가르침은 세상의 본래 모습을 볼수 있게 해준다. 어겨에서 더 나아가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리를 구현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사성제(四聖諦)이다. 사성제란 “네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이다.

네가지 진리가 있다. 무엇이 네가지 진리인가? 이른바 괴로움의 진리 고성제(苦聖諦),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진리(苦集聖諦),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에 대한 진리(高城道諦)를 말한다.

「잡아함경」 「제15권, 387경」

사성제란 괴로움(苦)과 괴로움의 원인(集)과 괴로움의 소멸(滅)과 괴로움도 소멸하는 길(道)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를 줄여서 고·집·멸·도, 네가지 성스러운 진리, 즉 사성제라고도 한다. 이 네가지는 서로 원인과 결과를 이루며, 고통의 세계와 고통을 여윈 열반의 세계가 대비를 이루고 있다.

먼저 고성제를 보자. 그것은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일까? 그것은 고통을 바로 보고 느낄 인간은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인간에게는 이 네가지 고통 외에도 여러 가지 고통이 있다. 생로병사의 고통을 네가지 고통이라고 해서 사고(四苦)라고 한다. 이 네가지 고통에 다하여 여덟가지 고통이 있는데, 그것을 팔고(八苦)라고 한다. 그것은 사고



(四苦)와 더불어 원증회고(怨憎會苦), 애별리고(愛別離苦), 구불득고(求不得苦), 오취온고(五取蘊苦)를 말한다.

원증회고는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고통이요, 애별리고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이다. 구불득고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이요, 오취온고란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생존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의미이다.

인간은 색(色), 수(受), 상(想), 행(行), 식(識)의 오온(五蘊)으로 구성되어 있다. ‘색(色)’이란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일반을 말한다. 수(受) ‘한 외부 대상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감수작용이다.’ 상(想) ‘이란 감각으로 받아들인 느낌을 자신의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각하는 작용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감각의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보지않고 내 생각의 틀 속에 있는 개념과 이름으로 파악한다.’ 행(行) ‘이란 행동 의지를 말한다. 그것은 마음을 이끄러 어떤 행위를 하게끔하는 것으로 내지 결심·노력등을 말한다.’ 식(識) ‘이란 그렇게 내 마음을 이끈 대상에 대해 분석하여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작용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한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오온에 대해서 집착하고 실체화하며 고정화시킨다. 그럼으로써 고통이 발생한다. 그것이 오취온고의 의미이다.

고통이 왜 발생하는가? 좀 전에 말했듯이 그것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무상한 세계에서 영원한 것을 찾고, 자기 것이 본래 없는데도 헛되이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것이다. 이를 설명한 것이 집성제(集成諦)이다.

이 세상에 고통이 있다면, 고통 없는 세계도 있고, 거기에 이르는 길도 있을 것이다. 멸성제(滅性諸)는 고통의 원인이 사라진 상태를 말한다. 고통에서 벗어난 해탈, 열반의 경지가 있음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멸성제이다.

그러면 고통의 원인을 없애고 열반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



가? 열반으로 가는 길은 여덟가지 바른길이라는 뜻으로 다음과 같다.

①**정견(正見)**: 바른견해이다. 편견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이를 여실지견(如實知見)이라고 부른다. 바른삶의 시작은 바로 볼 때 시작된다. 바른 가치관이 확립될 때 우리는 어떻게 사유하고 행위할것인지 그길이 보인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와 중도를 바로 보는 것이 정견이라고 했다.

②**정사유(正思惟)**: 바른 생각 혹은 바른 결심이다. 바른 견해를 거쳐야만 바른 생각과 결심을 할 수 있다. 행동하기 전에 바로 보고 생각하며 결심해야 한다. 그럴 때 힘을 얻는 것은 물론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없다.

③**정어(正語)**: 바른 말이다. 말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욕이나 비방하는 말은 그 사람의 비뚤어진 생각과 시각을 나타낸다. 항상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하여 구업(口業)을 짓지 않으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을 해야한다.

④**정업(正業)**: 바른행동이다. 모든 행위를 바르게 해야한다. 누가봐도 옳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행동을 해야 한다. 이 바른 행동에는 생명을 해치지 않으며 주지 않는 물건을 취하지 않는다는 오계와 그밖의 계율이 명시되어있다.

⑤**정명(正命)**: 바른 생화, 즉 바른 직업이다. 옳은 일에 종사하고 모과 마음과 말, 즉 신구의(身口意)삼업을 청정히 하면서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를 직업관을 가지고 생업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수행하는 스님들은 점성술이나 고리대부등의 사교파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다.

⑥**정정진(正精進)**: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쉽없는 노력을 말한다. 아울러 옳은 일에 물러섬 없이 밀고 나가는 정열과 용기는 뜻하기도 한다.



⑦**정념(正念)**: 바른 마음 챙김이요 바른 마음 집중이다. 혹은 바른 알아차림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마음의 움직임과 느낌에 대해서 마음을 챙겨 바로 깨어 있는 것이다. 확대 해석하면 염불할때는 염하는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요, 화두를 들때는 화두에 마음을 모아 빈틈없이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⑧**정정(正定)**: 바른 선정이다. 마음 챙김과 마음 집중을 통하여 마음이 바른 삼매의 상태에 들어가 고요한 평정과 기쁨에 머무는 것이다.

이러한 선정이 깊어지면 욕망과 분노가 잠드는 정서적 해탈을 얻게 된다. 나아가 선정이 깊어지면 지혜의 눈이 열린다.

팔정도는 도성제의 내용이다. 괴로움과 집착의 상태를 벗어나 열반의 길로 들어가는 방법이 바로 팔정도이기 때문이다. 팔정도의 첫 번째 길인 ‘올바르게 보는 것(定見)’에는 중요한 뜻이 담겨 있다. 세상과 인생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면, 올바른 생각도 올바른 행동도 할수 없다는 뜻이다. 극단의 견해로 바라보면 극단적인 행동밖에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어떻게 현상과 사물을 보는가에 따라 모든 행동이 좌우된다. 즉 정견이 없으면 팔정도는 실현되지 않는다. 정견은 팔정도의 출발점인 것이다.

진정한 불자라면 정도르 걷는 사유와 실천을 매우 중호하게 여겨야한다. 생화엘서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 그리고 첫 번째 요건인 정견, 즉 중도와 연기적 관점을 갖는 것이 불자로서 바른 삶을 살수 있는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자들이 자신의 선입견이나 기존의 편견을 벗어버리고 만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유하는 훈련을 해야한다.

사성제와 팔정도는 고통의 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참된 불자라면 항상 이것을 잊지 말고 잘 익혀 생활에서 실현할수 있어야 한다.



제3품 큰 법문의 품 [Maha-Vagga]

4. 쏘다리가 바라드와자의 경 [Sundarikabhāradvāja-sutta]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 때 세존께서 꼬쌀라 국에 쏘다리가 강 언덕에 계셨다.
2. 그때 바라문 쏘다리가 바라드와자가 쏘다리가 강 언덕에서 불의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불의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3. 그런데 바라문 쏘다리가 바라드와자는 불의 신에 제물을 바치는 불의 제사를 준비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두루 사방을 살펴보았다.

[쏘다리가] ‘누가 제사를 지내고 남은 이 음식을 즐길 것인가?’

4. 그때 바라문 쏘다리가 바라드와자는 세존께서 어떤 나무 밑에서 머리에 두건을 쓰고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 보고 나서 그는 왼손으로 제사를 지내고 남은 음식을 들고, 오른손으로 물병을 들고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았다.
5. 세존께서는 바라문 쏘다리가 바라드와자의 발자국 소리 때문에 머리의 두건을 벗었다. 그러자 바라문 쏘다리가 바라드와자는 생각했다.



[쑤다리께] ‘이 존자는 머리를 뽀뽀 깎았네. 이 존자는 머리를 뽀뽀 깎았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고 했다.

6. 그러나 다시 바라문 쑤다리께 바라드와자에게 이와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쑤다리께] ‘어떤 바라문은 뽀뽀 깎은 자도 있다. 가까이 다가가서 출신을 물어 보는 것이 어떨까?’

7. 그래서 바라문 쑤다리께 바라드와자는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왔다.

[쑤다리께] “그대는 어떤 가문 출신입니까?” 그러자 세존께서는 바라문 쑤다리께 바라드와자에게 시로써 대답하셨다.

8. [세존] “나는 결코 바라문도 아니고 왕자도 아닙니다. 나는 평민도 아니고, 혹은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의 가문의 성에 대해 잘 알지만, 아무 것도 없이 지혜롭게 세상을 거닙니다.

9. 나는 머리를 깎고 마음을 고요히 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더럽혀지지 않고, 범복을 걸치고, 집없이 거닙니다. 바라문이며, 그대가 내게 성을 묻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10. [쑤다리께] “존자여, 바라문들이 바라문들을 만났을 때에 ‘바라문입니까?’라고 묻지 않습니까?”

[세존] “만일 그대가 바라문이고, 나를 바라문이 아닌 자라고 부른



다고 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삼행의 스물 녀자로 된 계승에 대해 묻겠습니다.”

11. [쑤다리께] “이 세상에서 선인들이나 일반인들이나 왕족들이나 바라문들은 무엇 때문에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까?”

[세존] “궁극에 이르고 지혜에 통달한 사람이 제사 때에 어떤 사람의 헌공을 받는다면, 그 어떤 사람에게 공덕이 있다고 나는 말합니다.”

12. [쑤다리께] “분명히 그러한 나에게 헌공의 공덕이 있을 것입니다. 지혜를 통달한 그대와 같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그대와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 다른 사람이 그 헌과 제사에 바치는 과자를 향유했습니다.”

13. [세존] “그렇다면 바라문이며, 유익한 일을 찾아서 그대가 왔으니 가까이 와서 물으십시오. 아마도 이곳에서 고요하여, 연기가 없고, 고통이 없고, 바람이 없는 총명한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14. [쑤다리께] “존자 고탐마여, 나는 제사를 즐기며, 제사를 지내려 합니다. 그러나 알지를 못합니다. 존자께서는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어디에 헌공하는 것이 공덕이 있는 것입니까?”

[세존] “그럼 바라문이며, 경청하십시오. 그대에게 가르침을 설하겠습니다.



대광사 5월 법회 및 행사

- ◇ 5월 7일 음력 4월 보름법회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5월 16일 관음재일 다라니기도 오후 6시 30분 대웅전
- ◇ 5월 23일 윤 4월 초하루기도 입재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5월 25일 초하루기도 회향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제22회 산사음악회는

코로나19의 질병확산방지와 감염에 대비하여
올해는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2021년에 더 멋지고 알찬 행사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광후원회

(3.18 ~ 4.17)

법연화 10,000	원광한의원 100,000	김지현 50,000	이동이연숙 100,000
홍승운 20,000	박미애 10,000	오현철 20,000	강란 10,000
황두관 10,000	변창인 20,000	조한분 25,000	유미란 50,000
김경남 20,000	정대식 20,000	김병문 20,000	대광사 100,000
이경화 10,000	금강지 20,000	황두관 10,000	
정진이 20,000	원지심 30,000	화성스텐냄음식 80,000	
(주)카텍 300,000	정연수 60,000	찬불단 50,000	

◆ 금식소 후원 계좌: 수협 921-61-001338 대광사 ◆

※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서부노인종합복지관 후원

조한분 25,000 대광사 100,000

부처님 오신날 연등접수

대웅전 10만원 /

설법전 7만원 / 영가등 5만원

문의 및 접수: ☎ 545-9595(종무소)



온라인 입금 안내

경남은행 : 518-07-0096440	예금주 - 대광사
수협 : 921-61-000421	예금주 - 대광사
농협 : 821145-51-042833	예금주 - 대광사
국민은행 : 654301-04-231813	예금주 - 대광사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